신당 경선 여론조사 놓고 충돌

鄭 "본경선때 도입은 당헌 위반… 묵과 못해"

孫 "당 흔드는 행위… 국민 참여 봉쇄 말라"

여론조사 반영 문제를 둘러싸고 손학규, 정동영 후보가 충돌하면서 대통합민주신당의 본경선이 흔들리고 있다.

정 후보는 "여론조사를 밀어부치면 불행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경선 불참을 시사한데 맞서 손 후보 측에서는 "당을 흔드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대치하고 있다.

9일 정 후보측 김현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본경선 여론조사 도입은 당헌 위반이라며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경선은 선거인단 투표방식으로 실시하며 모바일 투표, 인터넷 투표 등을 포함할 수 있다'는 당헌 113조 2항을 거론하며 "여론조사는 국민경선 방법으로 당헌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 후보측에서 당을 흔드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했는 데 당헌에도 없는 일을 하자는 것이야말로 당을 흔드는 일"이라며 "당헌을 만든 분이 손 후보측에 있는 데 자신들이 만든 당헌을 부정하는 것보다 심각한 행위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 측에서는 특히, 여론조사가 도입될 경우 한나라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한 표의 부등가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선거인단이 18,000명에 불과했던 한나라당도 여론조사 한 표당 선거인단 6표의 역할을 해 논란을 빚었지만 신당의 선거인단은 최소 백만명 이상이 예상돼 여론조사 20%를 반영할 경우 전화 응답자 한 사람의 비중이 투표장에 나온 수백명의 역할과 맞먹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 후보 캠프의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선 룰 문제에 대해 계속 왈가왈부하는 것은 당을 흔드는 행위"라며 "여론조사를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 참여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당 의장을 두 번이나 지낸 후보측 인사가 신당을 이렇게 흔들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냐"고 되물은 뒤 "여론조사를 반영하면 불행한 일이 있다는 말은 신당을 탈당할 수 있다는 말인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역공을 가했다.

그는 "신당 당헌에도 공천과정에 여론조사를 혼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유독 대선에서만은 배제하자는 주장을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당은 이날 밤 국민경선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본경선 여론조사 반영 여부 및 반영 비율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강을 형성하고 후보 측이 한치의 타협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자칫 경선 판 자체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할 경우 경선 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어 이번 주 초까지는 타협안이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8일 오후 영등포 당사에서 대선예비후보 5인의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룰 미팅과 국민경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여론조사 20% 반영 등을 골자로 한 본경선 룰을 최종 확정하려 했으나, 정동영, 이해찬 후보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결론을 맺지 못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뭘 논의할까 9일 오후 제주시민회관에서 열린 대통합민주신당 비전창조릴레이에서 여론조사 도입에 찬성하는 손학규, 유시민, 한명숙 후보가 뭔가 논의하고 있는 도중 이에 반대해 온 정동영, 이해찬 후보가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17대 대선 D-100

1997·2002년에는

올핸 이명박 Vs ? …대결구도 '안갯속'

제17대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역대 대선과 달리 한나라당 이외에는 후보조차 정해지지 않아 대결 구도 자체가 아직도 안갯속이다.

하지만 2002년과 1997년 치러진 16대, 15대 대선 D-100일에는 여야 후보가 이미 정해진 가운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다자(多者) 구도가 펼쳐지고 있었다.

1997년 김대중·이회창·이인제 후보 3파전

2002년 이회창 선두속 노무현·정몽준 추격

3김 퇴장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2002년 대선의 경우 개표 결과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간발의 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D-100일'이었던 9월 10일엔 어느 누구도 노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지 못했다.

당시 대선후보 지지율은 이회창 후보가 아슬아슬한 선두를 지킨 가운데 정몽준, 노무현 후보가 맞붙어 누가 승리를 거머쥘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4월 27일 후보 선출 뒤 5월까지 50%를 넘나들었던 노 후보의 지지율은 후보교체론부터 신당창당론까지 '노무현 후보 흔들기'의 여파로 D-100 시점엔 20%까지 급전직하한 상황이었고, 대세론의 이 후보도 연초 50%를 넘던 지지율이 '가회동 빌라게이트'와 원정출산 의혹 등으로 30~35%의 '박스권 지지율'에 묶인 채 애를 태웠다.

두 후보가 지지부진한 동안 월드컵 4강신화로 급부상한 정몽준 의원이 7월에 출마를 선언,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29.5%로 33.0%로 1위를 달리던 이 후보의 턱밑까지 치고 올라왔다.

1997년 15대 대선은 여당인 신한국당의 이회창 후보,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졌다.

D-100일 즈음 이회창 후보는 장남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한 야당의 '병풍(兵風) 공세'로 후보 교체론까지 불거지고 있었다. 반면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2위를 했던 이인제 경기지사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그해 9월 초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후보는 김대중 후보, 이 지사에 이어 3위로 밀려나기도 했다. 급기야 이 지사는 그 달 8일 대선 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사퇴했고 추석 연휴 시작 직전인 9월 13일 탈당,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제1 야당인 국민회의 김 후보는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DJP 연합을 준비하며 외연 확대에 박차를 가했고, 제2 야당인 민주당도 조순 서울시장을 후보로 영입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다.

대선 주자에 대한 각종 음해·비방이 난무하고, 정권의 정치공작설이 제기되는 것은 2002년 D-100이나 올해 D-100이나 출연진만 다를 뿐 줄거리는 엇비슷하다.

하지만 범여권이 아직 유력 후보 한명 없이 지리멸렬해 있는 반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50%가 넘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보이며 단독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 그 끝은 2002년, 1997년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모른다는 게 정치권의 일치된 견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내가 민주당 적자" 지지 호소

민주당 나주서 대선후보 첫 합동유세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8일 나주·화순 당원전진대회에서의 첫 후보 합동 유세전을 시작으로 본격 개막됐다.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5명의 후보들은 자신만의 경쟁력과 강점을 강조하며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나서게 해달라고 호소〈사진〉했고, 대선 직전 후보 단일화를 구상하고 있는 박상천 대표와 최인기 원내대표, 김경재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의 비교우위를 강조하며 자신감을 불어넣는데 주력했다.

신국환 후보는 "국민의 정부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대중 대통령이 장관으로 발탁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게 한 사람이 바로 저 신국환"이라고 강조했다.

장 상 후보는 "국민은 정권교체를 원하지만 민주당으로는 염려스럽지 않겠느냐는 마음 때문에 호남에 계신 분들도 한나라당을 쳐다보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며 "후보 단일화를 통해 민주당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조순형 후보는 "25년간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나지 않고 지켜왔으며, 민주당 파괴공작 속에 제가 나서자 당이 당당히 독자노선을 걷게 됐다"며 "미숙한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고생했지만 저는 6선으로 20여년 국정운영의 지식과 경륜을 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후보는 "우리나라 축구에서 훌륭한 주장은 홍명보이지만 골잡이는 박지성이다. 박지성처럼 골잡이로 커온 제가 대선 승리의 골을 넣겠다"고 자신했다.

이인제 후보는 "충청도의 아들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씌운 누명을 벗고 무죄를 받은 저를 국민이 확실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신당 국민경선위 집행위장 지병문 의원

국민경선위원장 양길승 위원

지병문(광주 남·사진) 의원이 7일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위원회 집행위원장에 임명됐다.

지 의원은 그동안 국민경선위 정책분과위원장을 맡아 대통령후보토론회 등을 주관해왔으며, 이목희 집행위원장이 대선후보 예비경선 과정의 순위 변동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함에 따라 그 뒤를 잇게 됐다.

지 의원은 "최근 예비경선 결과의 발표 착오를 채찍삼아 앞으로 한 치의 오차없이 경선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과 계층, 이념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임 국민경선위원장에는 양길승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민노 경선 권영길-심상정 결선투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해 심상정 후보와의 결선투표로 대선후보 경쟁을 벌이게 됐다.

권 후보는 9일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민노당 대선후보 전국 순회경선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 선출대회에서 총 유효 투표 1만5천907표 중 7천674표(48%)를 얻어 1위에 올랐다.

그러나 권 후보는 전국 지역별 경선 결과를 포함한 전체 경선 집계결과 1만9천53표(49.4%)를 얻는데 그쳐 과반 득표에 실패, 결국 50% 이상 득표자가 없을 때 1, 2위간 벌이는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다.

결선투표에는 권 후보 상대로 심 후보가 올랐다. 수도권 지역에서 4천316표(27%)를 얻어 2위를 기록한 심 후보는 전체 합계 1만64표(26%)로 2위에 올라 결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노회찬 후보는 수도권 지역과 전체 합계에서 각각 3천914표(24.5%), 9천478표(24.6%)로 모두 3위에 머물며 대선후보의 꿈을 접었다. 결선투표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치러지며 15일 오후 개표를 통해 대선후보가 발표된다. /연합뉴스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안내광고 원고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아래 은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히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 직통:(062)227-9600, 220-0524, 0525
• FAX:227-9500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
사설금융·매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광주은행:001-107-228160 ◆농협:6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목포시 공고 제2007-1036호
목포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안)공람 공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 하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9월 10일
목 포 시 장
가. 공람기간 : 2007. 9. 10~2007. 9. 24(14일간)
나. 공람장소 : 목포시 도시과, 원도심개발사업단
다. 계획의 범위 : 목포시 남교동 57번지 외 39개소 게재생략(공람장소비치)
※ 구역별 용적률 등은 향후 정비계획수립시 기부채납비율에 따라 최종결정
※ 사업추진단계 : 1단계(2008-2010년)
라. 계획수립 도서 : 게재생략
마. 관계도면 및 서류는 목포시청 도시과(061-270-8625), 원도심개발사업단(061-270-832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0월 28일 공인중개사 합격
최종문제풀이 특강 6주 완성
개강 9월 10일
"매일 핵심 40문항 모의시험 문제풀이를 통해 최종 합격 점검"
광주고시학원 본원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 첨단점 ☎971-0002 빅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제5기 한자한문지도사 자격모집
1. 연수일정
• 개강일시 : • 주중반 : 2007. 9. 14(금) • 주말반 : 2007. 9. 15(토)
• 모집기간 : 8. 17(금)~9. 15(토)
• 수업기간 : 2007.9.14~2008.2.23(6개월/24주)
• 수강료 : 320,000
모집인원:1단계 주중/주말반 각20명(선착순)
수업시간
• (매주 금, 토)09:10~14:30(5강좌)
수료후 특전
•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 수료증 수여(총장명의)
• 전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 취득기회부여(해당과목)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 각급학교 (특기적성교육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 TEL(062)950-3584, 3585, HP.011-614-4160

당뇨병
엉터리 치료법으로 나을 수 없다
● 당뇨가 치료되지 않는 것은 파괴된 췌장 내 Langerhans'섬이 재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 Langerhans'섬을 재생시킬 수 있는 "기적의 물질"은 없는가?
※문의하신 모든 분들께 "기적의 물질"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안내서 신청 문의◎
☎ 070-7012-0246